조선시대 진언집 실담장의 범자음운 및 사상의 체계*

강 대 현**

1. 머리말
2. 진언집 실담장의 구성과 내용
3. 실담장 범자음운에 적용된 불교사상
4. 진언집 실담장 구성의 교학적 체계성
5. 맺음말

초록: 조선후기에 간행된 여러 진언집에는 범자 실담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만연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에는 「실담장해의총론(즉발)」 등으로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실담장 범자음운에 대한 자세한 논설과 더불어 그 음운에 대승불교의 사상 및 교학을 적용하고 있다. a·ā·aṃ·aḥ자에는 '不生卽般若' 등의 사상을 적용하였으며, i·ī·u·ū·e·ai·o·au자에 대해서는 '八轉三昧卽萬行'의 사상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들 a·ā·aṃ·aḥ자에 唯識의 四智를 적용하였는데, 이들 중에서 ā·aṃ자의 적용에서 기술상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ā자에는 能證의 成所作智, aṃ자에는 所證의 平等性智 적용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ṛ·ṝ·ḷ·ḹ자에는 a자의 반야바라밀과 ā자의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바라밀을 보조하는 方便·願·力·智바라밀을 적용하였다. 또한 '二十般若卽不生'으로서의 ka·kha·ga·gha, ca·cha·ja·jha, ṭa·ṭha·ḍa·ḍha, ta·tha·da·dha, pa·pha·ba·bha 20자모에 적용하였고, 十信에 ṅa자, 三賢에 ña자, 前七地에 ṇa자, 後三地에 na자, 그리고 佛果에 ma자를 적용하는 등 이들을 十地에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1009949).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전문연구원(박사후연수과정).

배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ya・ra・la・va・śa・ṣa・sa・ha자에는 常・樂・我・淨과 無常・無樂・無我・不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후기 진언집 실담장의 교학적인 면에서는, 밀교의 五字輪[a(菩提心)・ā(如來行)・aṃ(成菩提)・aḥ(大寂涅槃)・āḥ(方便力)]의 a・ā・aṃ・aḥ자와 진언집 실담장의 a・ā・aṃ・aḥ자에 대한 교학적인 면에서는 일치하지만, āḥ자에 대한 적용이 진언집 실담장에는 표면상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러한 方便力의 āḥ자를 oṃ(身輪方便)・ā(口輪方便)・hūṃ(意輪方便)자에 따로 적용시킴으로써 밀교의 五字輪과는 다른 진언집만의 독특한 적용을 보이고 있다.

핵심어 : 진언집, 실담장, 四智, 十地, 五字輪, 方便力

1. 머리말

실담장이란 "고대인도의 범자에 대한 발음과 범자의 합성을 학습하기 위해 작성된 도표"[1]이면서 "실담범어의 자모와 字體를 배열하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결합방법 등을 기록한 하나의 형식적・조직적인 音韻書"[2]이다. 나아가 "범어를 배우는 가장 초급의 교재를 말하는 것으로, 주요 범문자모와 아울러 이들이 병합하고 連聲하는 등의 기본적 語音과 語法을 알게 해주는 것"[3] 등 범자의 음운학습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개념이 실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경전에서는 범자50자문이 『열반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비록 범자음운의 결합방법 등 음운론적인 기술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범자 음운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면서 각각의 음운에 불성・여래장 등의 사상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범자 음운에 대한 사상성의 적용은 이미 고대인도의 베다 등에서부터 유래하였지만, 특히 6세기 이후 인도의

1) 馬淵和夫, 2006『悉曇章の研究』, 東京: 勉誠出版, 1면.

2) 渡邊英明, 1933「悉曇梵語初學者の爲めに」,『密教研究』50, 和歌山: 高野山大學密教研究會, 89면.

3) 周廣榮, 2004『梵語'悉曇章'在中國的傳播與影響』,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6면.

밀교가 중국에서 크게 발달하면서 種子字로서의 성스러운 범자의 관념을 더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혜균이라는 백제의 승려가 지은 『大乘四論玄義記』에서 실담장을 기술한 「十四音義」가 최근에서야 발견되어 고대한국에서 실담장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4] 중세 한국에서는 『고려대장경』[재조대장경]에서 실담범자가 나타나고 있고,[5] 신라 義湘(625-702)의 『華嚴一乘法界圖』를 주석한 『法界圖記叢髓錄』에서 실담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6] 따라서 한국의 실담장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대량으로 간행된 진언집에서 그 양상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여러 진언·다라니를 모아 1569년에 간행한 안심사본 『진언집』을 시작으로 1800년에 간행된 망월사본 『진언집』 등의 실담범자를 이용한 진언집의 앞 또는 뒤쪽에 범자50자문을 나열하고 그 범자독음과 언문발음 등을 밝혀놓은 「실담장」이 한국 실담장 유통과 전개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의 진언집은 '오대진언류' 진언집 계통 이외의 진언다라니 등을 모아 간행한 다수의 책으로서,[7] 여러 선행된 연구를 토대로 하여,[8] 안심사본 『진

---

4) 자세한 내용은 강대현, 2015 「安然의 『悉曇藏』에 나타난 慧均의 『大乘四論玄義記』 卷第11 「十四音義」: 「十四音義」의 복원을 위한 序說」, 『한국불교학』 77, 한국불교학회, 439-474면; 강대현, 2016 「『대승사론현의기』에 나타난 혜균의 悉曇章」, 『인문논총』 73-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03-538면을 참고하기 바람.

5) 『고려대장경』에서 실담범자가 등장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不空譯, 『佛說雨寶陁羅尼經』(K. 1295, 922-923면); 不空譯, 『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四十二字觀門』(K. 1329, 1077-1078면); 不空譯,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K. 1370, 286-287면); 『大方廣惣持寶光明經』(K. 1095, 818면); 『佛說金剛香菩薩大明成就儀軌經』(K. 1207, 321-322면); 『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K. 1338, 1121-1122면); 『大樂金剛不空眞實三昧耶經般若波羅蜜多理趣釋』(K. 1333, 1089-1091면) 등이 있다.

6) K. 1063, 玄應의 『一切經音義』에 '悉曇章', '悉檀', '悉曇', '字音十四字', '八字超聲' 등의 개념이 보이고, K. 1498, 慧琳의 『一切經音義』에도 '悉曇章十二音字母'가 보이며, K.1506, 智儼의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에 '悉曇章'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華嚴一乘法界圖』[T. 45, 義湘(625-702)撰]의 주석서인 『法界圖記叢髓錄』(K. 1502, 신라 의상계열의 고려인 저술)에도 '悉曇章', '悉曇章摠持', '初章'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7) 1550년 간행, 『大陁經』(규장각 소장, 一簑古貴294.33-B871d, V.1-4); 1569년 간행, 安心寺本 『眞言集』(규장각 소장, 古 1730-59; 古 1730-59A); 1688년 간행, 보현사본 『大陁羅尼

언집』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담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폭넓게 다뤄진 실담범자의 표기상의 관점, 당시의 언문표기법, 실담범자와 관련된 불교사상의 적용 등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담장을 결집함으로써, 조선시대 한국에서 유통·전승되었던 한국만의 독특한 실담장의 범자음운 및 사상 체계의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진언집 실담장의 구성과 내용

진언집은 14세기 이후 당시까지 유통되었던 여러 진언을 모아 간행한 문헌을

眞言集』(규장각 소장, 一簑古294.33-D13j): 1688년 간행, 보현사본 『眞言集』(규장각 소장, 奎1730-16): 1688년 간행, 『結手文正音』全(규장각 소장, 古 1730-34): 1780년 간행, 萬淵寺本 『眞言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위창古 1798-8): 1784년 간행, 『秘密敎集』全(규장각 소장, 一簑古 294.31-B51): 1784년 간행, 『秘密敎』(동국대학교도서관 소장, D212·19-몽68ㅁ): 1800년 간행, 望月寺本 『眞言集』(규장각 소장, 古 1730-45, v.1-2; 奎 1730-16A, v.1-3; 奎 3143, v.1-3; 一簑古 294.33-Y8j, v.1-2) 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1차 텍스트로 사용될 진언집은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및 동국대학교도서관 소장본 등도 살펴볼 것이다.

8) 실담범자와 관련된 선행의 연구는 이미 폭넓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안에서 실담장 또한 언급되고 있다. 본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연구는 이태승, 2003 「망월사본 『진언집』의 「실담장해의총론」에 대한 연구」, 『밀교학보』 5,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안주호·이태승, 2003 「망월사본 『眞言集凡例』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안주호, 2002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 연구」, 『배달말』 31, 배달말학회이며, 또한 이태승, 2010 「『진언집』 梵字 한글음역 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그 해석」, 『인도철학』 28, 인도철학회; 안주호, 2002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 한국어교육학회; 안주호, 2003 「만연사본 〈진업진(1777년)〉의 표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안주호·이태승, 2011 「훈민정음과 실담문자」, 『밀교학보』 12,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이태승·안주호, 2003 「『秘密開刊集』의 체계와 표기에 대한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전동혁, 1992 「『眞言集』『秘密敎』로부터 본 李朝密敎」, 『중앙승가대학논문집』 1, 중앙승가대학교; 朴炳采, 1979 「眞言集悉曇章攷」, 『국어문학』 20(一山 金俊榮先生 華甲紀念論叢), 국어문학회; 이태승·안주호, 2004 『悉曇字記와 望月寺本 眞言集 硏究』, 글익는들; 이태승·최성규 공저, 2008 『실담범자입문』, 정우서적 등에서도 실담장과 관련된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말한다. 이러한 진언집은 대략 두 가지의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희숙에 의하면, "첫 번째는 '오대진언류' 진언집 계통으로, 가장 영험이 있다고 믿어졌던 다라니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를 택해 한 책으로 묶어 간행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結手文類' 진언집 계통으로, '結手文', '志磐文', '仔蘘文', '點眼文' 등 특정 불교의식집 이름을 소제목으로 달고 그 소제목 하에 이들 의식집의 책에서 뽑은 진언들을 수록하고, 거기에 더하여 '正本楞嚴呪', '觀世音菩薩微妙本心六字大明眞言', '佛頂尊勝陀羅尼', '隨求卽得陀羅尼' 등 각종 다라니경에서 발췌한 다라니 등을 수록한 책이다."[9] 또한 편찬목적인 "내용상으로도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讀誦用이고, 또 하나는 修法次第用이다. 즉 하나는 일반인들이 독송을 통해 공덕을 얻기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수행자들의 수행을 위한 목적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10] 즉 당시의 불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진언집이 간행됨으로써, 비록 사상적인 측면에서 불교의 발전은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고대한국으로부터 전승되어온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중세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언집을 포함한 여러 불교의식집이 당시 불교문헌 간행의 일면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실담장은 이 당시의 진언집에 유일하게 남아있으므로, 진언집의 실담장을 통하여 중세 한국의 실담장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언집 중에서 실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이와 관련된 중국의 韻圖, 언문과의 관계, 실담범자50자문 등 범문・한문・언문의 관련성을 논설하고 있는 최초의 진언집이 만연사본 『진언집』이며,[11] 이에 관한 가장

9) 남희숙, 2004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28면.

10) 남희숙, 2000 「朝鮮時代 陀羅尼經・眞言集의 간행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大 奎章閣 所藏本의 분석을 중심으로」, 『회당학보』 5, 85면.

11) 이전까지는 『結手文正音』全(古 1730-34 / 규장각 소장)이 한글판 『五大眞言』(1446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보다 늦게 간행되었고, 1569년에 간행된 안심사본 『진언집』의 저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사이를 간행시기로 추정하여, 진언집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간기가 康熙27年[(1688)平安道寧邊妙香山伊影臺開板移鎭于普賢寺]으로 확인되었다(본문의 '〈표 3〉 진언집 등의 「실담장」' ㉮ 참고바람).

완성도 높은 진언집이 망월사본『진언집』이다.[12] 따라서 우선 진언집의 실담장 등에 관하여 논설하는 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두 판본을 아래의 표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표 1〉 진언집의 실담장 등에 관한 논설장의 구성

①만연사본『진언집』	②망월사본『진언집』
重刊眞言集序	重刊眞言集序
凡例	*眞言集總論
洪武韻字母之圖	阿字論
諺本十六字母	唵啊吽字論
梵本五十字母悉曇章	悉曇章解義總論
(悉曇章韻圖)	眞言集凡例
阿字論	洪武韻字母之圖
唵啊吽論	諺本十六字母
悉曇章解義總論卽跋	梵本五十字母悉曇章
	(悉曇章韻圖)

위 표의 ①과 ②에 대한 구성을 비교해보면 ①과 ② 권두에서 공통적으로 시작하고 있는「중간진언집서」는 장의 명칭만 같을 뿐 이들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①의 구성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진언집총론」이 ②에 추가되었다. 장의 명칭에서도 ①의「범례」가 ②의「진언집범례」로, ①의「唵啊吽論」이 ②의「唵啊-吽字論」으로, ①의「실담장해의총론즉발」이 ②의「실담장해의총론」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②가 구성의 변화 내지 내용의 부가 등을 통하여 ①보다 집약적이며 짜임새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언집의 실담장 등에 관한 논설장의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전체적인

12) 안심사본『진언집』에서도 언본16자모와 범음과의 관계, 실담장 및 실담장운도와 실담장의 사상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만연사본 및 망월사본『진언집』과 같은 실담장에 대한 독립된 논설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실담장의 음운 파악을 위해 그 명칭이 생략되어 있는 「실담장운도」를 다음의 표에서 나타내었다.[13]

〈표 2〉 실담장운도

(惡)字淨除卽涅槃	(暗)證大空卽菩提	後之六字前長後短	aḥ (惡) (入)	aṃ (暗) (去)	au 口汙 (入) ⑧	o 汙 (去) ⑦	ai 愛 (入) ⑥	e 曳 (去) ⑤	ū 嗚 (去) ④	u 烏 (上) ③	ī 咿 (去) ②	i 伊 (上) ①	ā (啊) (去)	a (阿) (上)	前之六字前短後長	(啊)行萬行卽三昧	(阿)本不生卽般若

㊇轉三昧卽萬行	ṇa 曩 (入) [3]	ḍha 荼 (去) ◇12	ḍa 拏 (上) ◇11	ṭha 侘 (平濁) ◇10	ṭa 吒 (平淸) ◇9	舌音	ña 攘 (入) [2]	jha 社 (去) ◇8	ja 惹 (上) ◇7	cha 差 (平濁) ◇6	ca 左 (平淸) ◇5	齒音	ṅa 仰 (入) [1]	gha 伽 (去) ◇4	ga 誐 (上) ◇3	kha 佉平濁 ◇2	ka 迦平淸 ◇1	牙音	ḹ 口梨 (去)	ḷ 梨 (上)	ṝ 哩 (去)	ṛ 里 (上)	助音	◇二◇十般若卽不生

△超涅槃卽淨除	kṣa 乞洒 (平二合)	ha 賀 (去) △8	sa 薩 (上) △7	ṣa 沙 (平) △6	śa 舍 (去) △5	va 嚩 (上) △4	la 攞 (平) △3	ra 囉 (去) △2	ya 野 (上) △1	超音亦云和會聲	ma 莽 (入) [5]	bha 婆 (去) ◇20	ba 摩 (上) ◇19	pha 頗 (平濁) ◇18	pa 波 (平淸) ◇17	脣音	na 娜 (入) [4]	dha 馱 (去) ◇16	da 那 (上) ◇15	tha 佗 (平濁) ◇14	ta 多 (平淸) ◇13	喉音	[五]入菩提卽大空

이상의 운도에서는 a(阿) · ā(啊) · aṃ(暗) · aḥ(惡)자, ①i · ②ī · ③u · ④ū · ⑤e · ⑥ai · ⑦o · ⑧au자, 조음인 ṛ · ṝ · ḷ · ḹ 4자와 ◇1ka · ◇2kha · ◇3ga · ◇4gha 등의 20자모 및 ṅa[1] 등 비음 5자, 그리고 ya△1 · ra△2 등 초음 8자 등을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a(阿) · ā(啊) · aṃ(暗) · aḥ(惡)자에 般若, 三昧, 菩提, 涅槃 등 불교의 대의적 사상성을 부여하고 나서, 이 4자에 다시 a(阿)자 반야에 상응하는 ka◇1 · kha◇2 · ga◇3 · gha◇4 등의 20자모, ā(啊)자 삼매에 상응하는 ①i · ②ī · ③u · ④ū · ⑤e · ⑥ai · ⑦o · ⑧au 8轉聲, aṃ(暗)자 보리에 상응하는 [1]ṅa · [2]ña · [3]ṇa · [4]na · [5]ma 5자, aḥ(惡)자 열반에 상응하는 △1ya · △2ra · △3la · △4va · △5śa · △6ṣa ·

13) 진언집의 각각의 음운은 모두 실담범자로 표기되고 있으나 편의상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이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실담장운도의 원 · 네모 등 안의 한자 및 숫자는 필자가 부가한 것이다.

𑖪sa · 𑖫ha 초음 8자에 대응시키고 있다.

또한 진언집에서는 "무릇 실담장을 살펴보면, 梵書에서는 音을 근거로 하여 소리의 변화에 따라 글자를 만든다."[14]라고 하였다. 이는 곧 음을 기반으로 한 범어는 소리가 달라짐[전성]에 따라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서의 자모에는 12전성, 25 牙音 등의 5음, 9會音(또는 超音), 4助音 등 모두 합하여 50자가 있다."[15]라고 함으로써, 5음 · 9회음 · 4조음 등은 12전성과 결합하여 적절한 모양의 글자가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담장은 a · ā · i · ī · u · ū · e · ai · o · au · aṃ · aḥ[이상 12전성], ka · kha · ga · gha · ṅa/ca · cha · ja · jha · ña/ṭa · ṭha · ḍa · ḍha · ṇa/ta · tha · da · dha · na,pa · pha · ba · bha · ma[이상 5음 25자모], ya · ra · la · va · śa · ṣa · sa · ha · kṣa[이상 9超音], ṛ · ṝ · ḷ · ḹ[이상 4조음] 등 50자의 자모[음운]와 이들이 결합하여 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범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담장은 1569년에 간행된 안심사본 『진언집』, 1777년에 간행된 만연사본 『진언집』,[16] 1784년에 간행된 『비밀개간집』,[17] 그리고 1800년에 간행된 망월사본 『진언집』 등에서 독립된 장의 형태인 「실담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세기말

14) Ⓐ만연사본 『진언집』 「범례」7b; Ⓑ망월사본 『진언집』 「실담장범례」15a, "觀夫悉曇章梵書隨音變聲作字." 이하에서는 만연사본을 Ⓐ로, 망월사본을 Ⓑ로 표기한다. 그리고 『眞言集』[김해정 편, 2007 『眞言集』(이본5종), 홍문각]에서는 이들 Ⓐ · Ⓑ가 모두 영인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문헌의 면수를 따랐다.

15) Ⓐ「범례」7b; Ⓑ「실담장범례」15a, "梵書字母之總有十二轉聲二十五牙等五音九會音(亦云超音)四助音總合五十字."

16) 이 판본에 대해서는 이미 전동혁(1992)의 「『眞言集』『秘密教』로부터 본 李朝密教」(『중앙승가대학논문집』 1)와 안주호(2003)의 「만연사본 『진언집(1777년)』의 표기법 연구」(『국어국문학』 133)에서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여기서 전동혁은 「阿字論」, 「唵啊吽字論」에서 나타나는 사상적 특징을 밀교적 맥락에서 여러 밀교경궤와의 연관성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안주호는 국어학의 입장에서 한글표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7) 이 계열의 문헌은 크게 두 종류로서 표제가 『秘密教』라는 이름으로 된 『秘密開刊集』과 표지명이 『秘密教集』이라고 된 두 문헌이다(이태승 · 안주호, 2003, 「『秘密開刊集』의 체계와 표기에 대한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163-164면).

경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悉曇章』[18]은 표제가 이미 실담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진언집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담장」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진언집 등의 「실담장」

㉮	● 표제: 『眞言集』(古 1730 59A / 규장각 소장) ■ 간기: 隆慶3年己巳(1569)仲夏全羅道同卜地無等山**安心寺**重刊
「悉曇章」 ①'阿本不生卽般若 啊行萬行卽三昧 前之六字前短後長' [a · ā · i · ī · u · ū · e · ai · o · au · aṃ · aḥ] '後之六字前長後短 惡字淨除卽涅槃 暗證大空卽菩提 二十般若卽不生, [助音: ṛ · ṝ · ḷ · ḹ], [牙音: ka · kha · ga · gha · ṅa], [齒音: ca · cha · ja · jha · ña], [舌音: ṭa · ṭha · ḍa · ḍha · ṇa], '五入菩提卽大空' [喉音: ta · tha · da · dha · na], [脣音: pa · pha · ba · bha · ma] '八轉三昧卽萬行', [超音亦云和會聲: ya · ra · la · va · śa · ṣa · sa · ha · kṣa], '八超涅槃卽淨除' ②'前四頌中明能所證及修成本有之義亦有四智之義准以思之可解二十般若者五聲字中各前四字也五入菩提者五聲字中各後一字也八轉三昧者十二轉聲中中間八字也八超涅槃者除乞洒字其餘是也五聲之中各初二字皆平聲以淸濁分之各後三字則音以上去入分之取五音之字若與十二聲反之則如漢字反若與下五音相合則如乞洒之類上字半訓下字全訓 a阿(上)ā阿(去)aṃ暗aḥ' ③「悉曇章韻圖」(명칭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4천왕범자종자자외호도상 5본과 부적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	● 표제: 『諸眞言集』(貴重書 濯足 114 / 駒澤大學 電子貴重書庫 所藏 http://repo.komazawa-u.ac.jp/opac/collections/453/?tm=1430697600157) ■ 간기: 隆慶3年己巳(1569)仲夏全羅道同卜地無等山**安心寺**重刊 ■ 간기: 順治15년(1658)戊戌6月下澣日江原道襄陽都護府地雪岳山**神興寺**重刊
위의 밑줄 친 ①·②·③부분과 동일, 4천왕범자종자자외호도상 2본과 부적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	● 표제: 『結手文正音』全(古 1730-34 / 규장각 소장); ● 표제: 『大陁羅尼眞言集』全(일사 古 294.33 D13j / 규장각 소장); ● 표제: 『眞言集』(奎 1730-16) / 규장각 소장 ■ 간기(이상의 3본 모두 동일): 康熙27年(1688)平安道寧邊妙香山**佪影臺**開**板移**鎭于**普賢寺**
「佛頂尊勝陁羅尼啓請」, 「우새사비사야다라니」 다음으로 '②와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고, 「遍一切處字輪額前眞言」, 「頂右진언」, 「頂後진언」, 「頂左진언」 후 「실담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 구성은 「悉曇章」 '①과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문헌의 공통점은 혁필로 된 실담범자 50자문이 생략되어 있으며, 4천왕범자종자자외호도상과 부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18) 이 문헌은 표제가 이미 『실담장』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서 텍스트로 하고 있는 문헌 중에서 가장 후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언집과는 다르게 권두에 종자자진언 5종 이외에는 진언다라니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禪家와 관련된 「看堂論」, 「臨濟3句」 등과 진언집의 실담장과 관련된 논설장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은 실담장의 기초 이론을 밝혀놓은 선가의 저작으로서 禪·密의 융합을 잘 보여주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헌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지면을 통해서 자세히 밝히기로 한다.

㉮	● 표제: 『眞言集』[김해정 편, 『眞言集』(이본5종), 2007, 홍문각] ■ 간기: 「중간진언집서」 말미에 '乾隆丁酉(1777년)3月日法姪有一謹序'가 나타나고 있고, 「중간진언집권지하종」 이후에 '乾隆42年丁酉(1777)4月日全羅左道和順地羅漢山**萬淵寺**重刊(…)'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까지의 「悉曇章」이 「梵本五十字母悉曇章」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며, 그 구성은 「重刊眞言集序」를 시작으로 「凡例」, 「洪武韻字母之圖」, 「諺本十六字母」, 「梵本五十字母悉曇章」, 「悉曇章韻圖」(명칭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4천왕범자종자자외호도상 2본과 부적, 관음보살·용왕도와 동진보살·동녀도, 위패[전패]도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범례」의 冒頭에는 '海東沙門龍岩增肅校對'라고 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伽梵達磨가 번역한 「대비심다라니경」과 「畵像千手經」, 「阿字論」, 「唵啊吽論」, 「悉曇章解義總論卽跋」, 「看堂式」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으며, 책의 마지막에는 또 다른 간기인 '重刊眞言集後4年康子(1780년)7月日伽梵達磨三藏所譯千手與畵像千手回以付此爾'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상천수경」 이후의 내용은 1780년에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 표제: 『秘密敎集』全(일사 古 294.31-B51 / 규장각 소장) ■ 간기: 권말에 '乾隆49年甲辰(1784)7月日慶尙右道星州牧西**佛靈山雙溪寺修道**菴開刊'이 기술되어 있다.
「凡例」(제목 생략됨), 「洪武韻字母之圖」, 「諺本十六字母」, 「梵本五十字母悉曇章」, 「悉曇章韻圖」(명칭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까지 만연사본(1777)과 동일한 판형을 그대로 실고 있다. 이어서 「후령통8엽개지도」를 비롯한 「준제9자9건천천원지도」 등의 도상과 「諺反切」 다음으로 다시 「실담장」과 운도가 나타나고 있다.	
㉰	● 표제: 『密敎開刊輯集』(D212·19-몽64ㅁ,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간기: 목록말에 '甲辰(1784)6月日盆城后人幼學金德潤謹書', 권말에 '乾隆49年甲辰(1784)7月日慶尙右道星州牧西**佛靈山雙溪寺修道**菴開刊'이 기술되어 있다.
이 판본 또한 혁필의 실담범자 표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안심사본 『진언집』에서 보였던 a阿(上)ā啊(去)aṃ暗aḥ 중에서 a阿(上)ā啊(去)aṃ暗(去)까지만 기술되어 있다. 형식상으로 「悉曇章」 '阿本不生卽般若' 등은 앞의 판본들과 같다. 그리고 앞의 판본에서는 범자음운의 사상적 적용에 모호함이 있었다. 가령 '二十般若卽不生'은 원칙상 助音 뒤 牙音의 설명 앞에 위치해야 순서상 적절하다. 본 판본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	● 표제: 『眞言集』상·하(古 1730-45, v.1-2 / 규장각 소장); 『진언집』건·곤(一簑 古 294.33-Y8j, v.1-2 / 규장각 소장); 『진언집』상·중·하(奎 1730-16A, v.1-3 / 규장각 소장) ■ 간기: 上之二十四秊嘉慶庚申(1800)孟夏重刊 楊州道峯山**望月寺**藏板.
「眞言集總論」, 「阿字論」, 「唵啊-吽字論」, 「悉曇章解義總論」, 「眞言集凡例」, 「洪武韻字母之圖」, 「諺本十六字母」, 「梵字五十字母悉曇章」 등의 순서로 『진언집』 전체를 이해시키기 위한 이론적·실질적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梵字五十字母悉曇章」 다음에 안심사본에서와 같이 ②'前四頌中 (…) 上字半訓下字全訓'이 기술되고 있지만, a阿(上)ā啊(去)aṃ暗aḥ은 나타나지 않는다. 약식의 실담장 또한 안심사본과 동일하다. 「梵本五十字母悉曇章」 '阿本不生卽般若' 등 만연사본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되어 있다. 이 판본(古 1730-45, v.1-2)은 여타의 『진언집』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구절이 나타나고 있다. 「眞言集凡例」의 기술이 끝나고 난 뒤 「洪武韻字母之圖」를 기술하기 이전에 '去丁酉歲萬淵寺重刊本諺字皆從字母分淸濁全次書之如 伽가駝따婆빠戊쑤阿하惹샤誐아醝짜賀해地띠毘삐伽嚩ᄆᆞ라地尾뚜미戊第쑫뗴毘樂뺙沙嚩ᄉᆞ바怛嚩ᄃᆞ바惹嚩ᄉᆞ바之類而今本則諧俗書之覽者諒焉'[19]라는 구절이 기술되어 있다.	

㉮	● 표제: 『悉曇章』(등록번호: D1872, 청구기호: 491.2 실221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간기: 歲在赤狗(丙戌年1886)仲春僞○○○客○**白羊山○○○錦海和尙**會上 금해화상은 지리산 백양산 문중 羊岳禪師(18c후반-19c초반)의 제4대 법손이다. 본 『실담장』은 금해화상의 제자에 의해 써진 책이다.
권두에 「법신비밀실지5륜: aṃ vaṃ raṃ haṃ khaṃ」 등 종자자진언 5종과 간기가 나타나고 있고, '阿啊 伊 咿와 ① 및 ②의 '前四頌中 (…) 上字半訓下字全訓'이 기술되고 있지만, a阿(上)ā啊(去)aṃ暗a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는 언문 음운에 해당되는 소범자[반체]가 정리되어 있으며, 『유가금강정경석자품』의 50자문을 범자와 언문으로 병기하고 있다. 다음은 「唵啊吽字論」, 「阿字論」, 「看堂論」, 「臨濟3句」, 「別明臨濟宗旨」 등과 「10法界頌」 및 10바라밀의 기호와 해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중에서 시기적으로 ㉮안심사본이 가장 오래된 진언집이며, ㉯신흥사본은 ㉮본과 같은 판본으로서, ㉮본의 간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흥사본에서는 ㉮본에서의 낙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본에 대한 보다 완전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20] 따라서 최고본인 ㉮안심사본 『진언집』으로부터 완성형인 ㉲망월사본 『진언집』에 이르기까지 다소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실담장의 구성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 『실담장』은 당시 禪家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실담장의 면모를 파악해보기 위한 중요한 문헌으로 여겨진다.

3. 실담장 범자음운에 적용된 불교사상

앞에서 보았듯이 실담장은 원래 범자 학습을 위한 음운요약서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불교에서는 그 형식에 불교의 사상을 접목함으로써 범자음운 각각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조선후기 진언집에서는 실담장 50자문을 운도의

19) 망월사본 『진언집』, 16쪽 후면, "지난 정유년(1777)에 만연사에서 중간한 판본의 언문자는 모두 자모에 따라 淸濁全次로 구분하여 적었다. 伽는 까, 駝는 따, 婆는 빠, 戌은 쑤, 阿는 하, 惹는 ㅿ, 誐는 아, 醝는 짜, 賀는 ᄒᆞᆷ, 地는 띠, 毘는 삐, 伽囉는 ᄀᆞ라, 地尾는 ᄄᆞ미, 戌第는 쑨떼, 毘樂은 뺙, 沙嚩는 ᄉᆞ봐, 怛嚩는ᄃᆞ봐, 惹嚩는 ᄋᆞ봐 등과 같다. 하지만 본 판본에는 속가의 쓰임에 맞춰 보는 이로 하여금 용이하게 하였다."

20) 비록 ㉯본에서는 4천왕범자종자자외호도상이 2본 밖에 남아있지 않으나 ㉮본에 낙장된 부분이 다수 있음을 ㉯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형식에 대입하여 외국어로서의 범자음운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는 물론 같은 계통의 범자음운에 사상성을 적용하고 있다. 즉 범자 각각에 사상성을 부여한 기존의 『열반경』 등과는 달리 음운의 유형별로 사상성을 대입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계통의 범자음운에 불교사상을 적용한 것은 조선후기 진언집에만 나타나고 있는 매우 독특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21]

다음에서는 만연사본 『진언집』의 「범례」와 「실담장해의총론즉발」 및 망월사본 『진언집』의 「실담장해의총론」과 「진언집범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자 음운에 대한 사상적 적용을 표로 나타내었다(이하에서는 「실담장해의총론(즉발)」, 「(진언집)범례」로 표기한다.).

〈표 4〉 실담장 49자문(kṣa제외)에 적용된 사상

<table>
<tr><td>실담장 49자문</td><td colspan="8">「실담장해의총론(즉발)」과 「(진언집)범례」의 실담장 50자문의 사상적 적용</td></tr>
<tr><td>a</td><td rowspan="4">總義</td><td>本不生卽般若</td><td colspan="3">般若바라밀</td><td colspan="2">妙觀察智(能證)</td></tr>
<tr><td>ā</td><td>行萬行卽三昧</td><td colspan="3">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바라밀</td><td colspan="2" rowspan="2">成所作智(能證)
平等性智(所證)</td></tr>
<tr><td>aṃ</td><td>證大空卽菩提</td><td colspan="3">智果</td></tr>
<tr><td>aḥ</td><td>字淨除卽涅般</td><td colspan="3">斷果</td><td colspan="2">大圓鏡智[所證]</td></tr>
<tr><td>i・ī・u・ū・e・ai・o・au</td><td>別義</td><td>8轉
三昧卽萬行</td><td colspan="6">8德 × 8轉聲 = 64梵音[22]</td></tr>
<tr><td>ṛ・ṝ・ḷ・ḹ</td><td>助音</td><td colspan="8">方便바라밀-보시・지계・인욕바라밀 보조, 願바라밀-정진바라밀 보조, 力바라밀-선정바라밀 보조, 智바라밀-반야바라밀 보조</td></tr>
<tr><td>ka・kha・ga・gha・ca・cha・ja・jha・ṭa・ṭha・ḍa・ḍha・ta・tha・da・dha・pa・pha・ba・bha</td><td>20
字母</td><td>20
般若卽不生</td><td colspan="6">內空・外空・內外空・空空・大空・勝義空・有爲空・無爲空・畢竟空・無際空・散空・無變異空・本性空・自相空・共相空・一切法空・不可得空・無性空・自性空・無性自性空[玄奘譯, 『大般若波羅蜜多經』(T. 220, 13b22-26)]</td></tr>
<tr><td>ṅa</td><td rowspan="2">(鼻音)</td><td rowspan="2">5入
菩提卽大空</td><td>10信</td><td>10住初位</td><td rowspan="2">法藏述, 『華嚴經探玄記』(T. 1733,</td><td>發心菩提</td><td rowspan="2">5種菩提[龍樹造 鳩摩羅什譯, 『大智</td></tr>
<tr><td>ña</td><td>3賢</td><td>3賢位</td><td>伏心菩提</td></tr>
</table>

21) 『열반경』에서는 50자문 각각에 불성・여래장사상을 적용하고 있고, 『금강정경석자모품』에서는 50자문 각각에 반야공사상을 적용하는 등 각각의 범자에 각기 다른 字義를 적용하고 있지만, 진언집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ṇa			前7地	初地見道	412c10-14)	明心菩提	度論』(T. 1509, 438a3-14)]
na			後3地	修道滿		出到菩提	
ma			佛果	佛果究竟道		無上菩提	
ya・ra・la・va・śa・ṣa・sa・ha	超音	8超 涅槃卽淨除	凡夫4倒(常・樂・我・淨)二乘4倒(無常・無樂・無我・不淨)[慧遠述,『大乘義章』(T. 1851, 576a14-27)]			權4德, 實4德	

먼저 총의로서의 a・ā・aṃ・aḥ자에 대한 사상성은 앞에서 보았던 '본불생즉반야, 행만행즉삼매, 증대공즉보리, 자정제즉열반'에 '반야바라밀,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바라밀, 지과, 단과'를 각각 대입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唯識의 4智인 '묘관찰지(능증), 성소작지(능증), 평등성지(소증), 대원경지[소증]'를 또한 각각 배당하고 있다.[23] 별의로서의 i・ī・u・ū・e・ai・o・au자에는 ā자를 통한 수행의

---

22) 安然撰,『悉曇藏』(T. 2702, 384c10-12)에서는 "여래의 범음 중에는 8전성으로서의 相이 8범음과 함께 상승하여 64종의 범음을 만들어 낸다(佛梵音中當以八轉聲相具八梵音則成六十四種梵音)."라고 하였다. 64범음은 法護譯,『佛說如來不思議祕密大乘經』(T. 312, 719c7-720c16)에 의하면, ①流澤聲 ②柔軟聲 ③悅意聲 ④可樂聲 ⑤淸淨聲 ⑥離垢聲 ⑦明亮聲 ⑧甘美聲 ⑨樂聞聲 ⑩無劣聲 ⑪圓具聲 ⑫調順聲 ⑬無澁聲 ⑭無惡聲 ⑮善柔聲 ⑯悅耳聲 ⑰適身聲 ⑱心生勇銳聲 ⑲心喜聲 ⑳悅樂聲 ㉑無熱惱聲 ㉒如敎令聲 ㉓善了知聲 ㉔分明聲 ㉕善愛聲 ㉖令生歡喜聲 ㉗使他如敎令聲 ㉘令他善了知聲 ㉙如理聲 ㉚利益聲 ㉛離重復過失聲 ㉜如獅子音聲 ㉝如龍音聲 ㉞如雲雷吼聲 ㉟如龍王聲 ㊱如緊那羅妙歌聲 ㊲如迦陵頻伽聲 ㊳如梵王聲 ㊴如共命鳥聲 ㊵如帝釋美妙聲 ㊶如振鼓聲 ㊷不高聲 ㊸不下聲 ㊹隨入一切音聲 ㊺無缺減聲 ㊻無破壞聲 ㊼無染汚聲 ㊽無希取聲 ㊾具足聲 ㊿莊嚴聲 (51)顯示聲 (52)圓滿一切音聲 (53)諸根適悅聲 (54)無譏毁聲 (55)無輕轉聲 (56)無動搖聲 (57)隨入一切衆會聲 (58)諸相具足聲 (59)一切衆生心意歡喜聲 (60)一切衆生心行聲 (61)入一切衆生心意聲 (62)隨諸衆生信解聲 (63)無分量聲 (64)平等無所增減聲이다.

23) 이 과정에서 만연사본『진언집』은 물론 망월사본『진언집』에서도 실담장 a・ā・aṃ・aḥ에 대한 4智의 사상적 적용과정에서 기술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실담장해의총론(즉발)」과「(진언집)범례」의 4智 적용에서, a자 묘관찰지와, aḥ자 대원경지의 적용은 동일하나, ā자와 aṃ자에 대한 성소작지 내지 평등성지의 적용이 만연사본『진언집』안에서부터 다르게 판각되어 있으며, 망월사본『진언집』안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 a・ā・aṃ・aḥ자의 4智 적용과 기술상의 오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러 가지 상이라고 할 수 있는 '8전삼매즉만행'으로서 8德과 12전성 중 8전성을 곱한 64종의 범음[24]으로 시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조음인 ṛ·ṝ·ḷ·ḹ자는 6바라밀인 a자의 반야바라밀과 ā자의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바라밀을 보조하는 方偏·願·力·智바라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총 16음은 모두 모음의 역할을 수행하여 무수히 많은 범자를 생성해내는 근본적인 범자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음에 대한 자음으로서의 범자에는 '20반야즉불생'으로서의 ka·kha·ga·gha, ca·cha·ja·jha, ṭa·ṭha·ḍa·ḍha, ta·tha·da·dha, pa·pha·ba·bha 20자모[25]와 '5입보리즉대공'으로서의 10信으로서의 ṅa, 3현으로서의 ña, 전7지로서의 ṇa, 후3지로서의 na, 그리고 불과로서의 ma자에 대승보살의 십지에 적용하고 있다.[26] 이러한 비음 5자에 대한 사상은 法藏의 『華嚴經探玄記』와 龍樹造·鳩摩羅什譯의 『大智度論』의 5종보리[27]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초열반즉정제'로서의 초음 ya·ra·la·va·śa·ṣa·sa·ha 8자에는 常·樂·我·淨과 無常·無樂·無我·不淨을 적용하고 있다.[28]

1) 「진언집총론」의 a·ā·aṃ·aḥ자에 대한 사상

이상에서와 같이 음운의 유형별로 적용한 사상 중에서도 총의로서의 a·ā·a

---

24) 法藏述, 『華嚴經探玄記』(T. 1733, 189c24-190a5), "三約佛音德亦八種 如梵摩喩經說 一最好聲其聲淸雅如迦陵等 二易了聲言辭辨了 三調和聲大小得中 四柔軟聲言無麤獷等 五不誤聲言無錯失 六不女聲其聲雄朗 七尊慧聲言無懼怯如尊重人如勝慧人言無所畏 八深遠聲齊輪發聲猶如雷震 此上三類是佛圓音體德用分三耳 四約通融有六十四種梵音聲 此有二釋 一別數六十四種如密迹力士經中具顯 二諸德於前三類之中 以初八入後八內 一一具八 是故八八成六十四也."

25) 이에 대한 전거로는 玄奘譯, 『大般若波羅蜜多經』(T. 220, 13b22-26) 등을 들 수 있다.

26) 이에 대한 전거로 法藏述, 『華嚴經探玄記』(T. 1733, 412c10-14)에 나타나고 있다.

27) 이에 대한 전거로는 龍樹造 鳩摩羅什譯, 『大智度論』(T. 1509, 438a3-14) 등을 들 수 있다.

28) 慧遠述, 『大乘義章』(T. 1851, 576a14-27)에서 이러한 8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ṃ·aḥ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음운에 사상을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a·ā·aṃ·aḥ 4자 모두 a자의 계열이며, 뒤의 aṃ·aḥ 2자는 범자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음운이기 때문이다.[29] 따라서 a자로부터 유출된 실담 12자는 모든 실담범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근본적인 음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4자에 대한 사상 적용이 「진언집총론」에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언집총론」은 망월사본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실담 이것은 자모라고 하며, 처음으로 바라하마천(brahma-deva)왕이 만들어 둔 것을 말하는데, 20字母章[30]의 맨 앞에 두었기 때문"[31]에 실담이라고 한 것이다. 즉 a·ā·i·ī·u·ū·e·ai·o·au·aṃ·aḥ이 전성하여 20자모 등과 결합할 때의 변형되는 字體가 12전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곧 12전성이 실담으로서 무량의 진언을 만들어내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주목할 음운이 바로 a·ā·aṃ·aḥ 4자인 것이다. 다음은 a·ā·aṃ·aḥ 4자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적용된 내용이다.

> 'a阿本不生卽般若'라고 하는 것은 始覺智로서 本覺을 깨닫고, 진여성의 부처로 태어나 染淨 등의 제법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곧 반야이다. 자세히 말하면,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大智로서 彼岸에 도달하는 것으로, 피안은 곧 부처가 (진여)실상을 아는 본각이며, 대지란 곧 부처가 시각을 관조하여 보는 것이다. 대개 시각이란 10바라밀 중 뒤의 4바라밀을 시작하는 이치로서, 앞의 6바라밀이 根本智, 뒤의 4바라밀이 後得智라고 하나 이를 합하면 앞의 6바라밀 안에 근본지와 후득지가 함께 포함된다. 이는 곧 了悟覺性한 發菩提心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32]

---

29) 玄應撰, 『一切經音義』(K. 1063, 23a18-20), "aṃ菴과 aḥ惡 이 두 자는 앞의 a亥와 ā阿 두 자(와 같은 계열)의 餘音[다른 음]이다. 만일 이러한 음이 없다면 끝없이 일체의 자를 만들게 되므로 거듭 이 두 자를 궁극의 문자로 취하였다(長菴惡此二字是前惡阿兩字之餘音若不餘音則不盡一切字故復取二字以窮文字)."

30) ka·kha·ga·gha·ṅa/ca·cha·ja·jha·ña/ṭa·ṭha·ḍa·ḍha·ṇa/ta·tha·da·dha·na/pa·pha·ba·bha·ma[이상 5音 25字母]에서 마지막 ṅa·ña·ṇa·na·ma자를 제외한 개념이다. 여기서 비음인 ṅa·ña·ṇa·na·ma자에 대해서도 각각의 자음에 사상성을 대입하고 있다.

31) Ⓑ2a, "悉曇此云字母亦云在初婆羅賀摩天王所作也而以在於二十字母章之初頭故也."

32) Ⓑ3a, "阿本云云以始覺智覺本覺眞如性上生佛染淨等諸法本不生滅卽般若具云摩訶般若波羅密多云大智

'a啊行萬行卽三昧'라고 하는 것은 無住의 行으로서 널리 萬行을 닦아 眞境에 상주함이 곧 三昧이다. 자세히 말하면, 三摩地라고 하여, 等持·平等持의 마음으로 한 경계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매라는 말에는 수만 가지가 있으나, 만일 일행삼매라고 하면 곧 진여삼매로서 진여의 경계에 머무르므로 진여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진여는 두 가지 相이 없으나 가명으로 일행삼매라고 이름하고, 그 경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혜 또한 하나이다. 그런즉 능히 시각을 만들고 여기서 만든 진여를 이와 같이 칭하면서 닦기 때문에 깨달음과 더불어 모두 같으며, 이러한 이치를 닦는 보살이 행하여 닦는 것이다.[33]

'aṃ暗證大空卽菩提'라고 하는 것은 여여한 智의 증득과 여여한 空의 이치가 곧 菩提이다. 자세히 말하면, 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고 한다. 無上徧智·正智·根智·成正智·後智·成徧智 모두 합하여 시각을 삼음으로써 成菩提果를 성취하는 것이다.[34]

'aḥ惡字淨除卽涅槃'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선정에 들어 業相을 정제하므로 곧 涅槃이다. 자세히 말하면, 대열반이라고 한다. 大圓寂에 들어 본각 위에서 心境의 萬法이 영원히 공적하기 때문에 대원적한 本覺의 成涅槃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각이 본각에 합치하여 成究竟覺에 든 것이다.[35]

이들 a·ā·aṃ·aḥ 4자에 사상적 해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到彼岸彼岸卽佛知實相本覺也大智卽佛見觀照始覺也蓋始覺者十度中後四度開則第六度根本智後四度後得智而合則第六度中具含根後二智云云是也此則了悟覺性發菩提心爲悟也."

33) Ⓑ3a-3b, "啊行云云以無住行廣修萬行常住眞境卽三昧具云三摩地云等持平等持心住於一境故三昧之言有萬而且一行三昧者卽眞如三昧住眞如境故名眞如三昧眞如無二相而造於此故名一行三昧以境一故智亦一也然則能造始覺所造眞如稱此而修故與悟全同此則修菩薩行爲修也."

34) Ⓑ3b, "暗證云云以如如智證如如空理卽菩提具云阿耨多羅三藐三菩提云無上徧智正智根智成正智後智成徧智合爲始覺成就成菩提果也."

35) Ⓑ3b, "惡字云云以金剛喩定淨除業相卽涅槃具云摩訶般涅槃那云入大圓寂於本覺上心境萬法永爲空寂故云大圓寂本覺至此成涅槃果此所謂始覺合本覺成究竟覺爲證也."

〈표 5〉 망월사본『진언집』「眞言集總論」의 불교사상

總義 4자	사상	원어	證果
①a阿	本不生卽般若	般若(prajñā)	發菩提心
②ā啊	行萬行卽三昧	三摩地(samādhi)	一行三昧(眞如三昧)
③aṃ暗	證大空卽菩提	阿耨多羅三藐三菩提 (anuttara-samyak-saṃbodhi,)	成菩提果
④aḥ惡	字淨除卽涅槃	摩訶般涅槃那(Mahāparinirvāṇa)	成究竟覺

즉 ①a阿자는 '본불생즉반야'로서 제법본불생의 지혜가 곧 반야의 지혜로서 ①a阿자를 통해서 발보리심을 일으키고, ②啊자는 '행만행즉삼매'로서 무주상의 청정행으로서 일행삼매에 들고, ③暗자는 '증대공즉보리'로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즉 보리과를 증득하게 되며, ④惡자는 '자정제즉열반'으로서 금강유정이 모든 업상을 정제하여 대열반의 구경각을 증득하게 된다.

2) a · ā · aṃ · aḥ자의 4智 적용과 기술상의 오류

이상과 같이 망월사본『진언집』에만 나타나고 있는「진언집총론」에서의 a · ā · aṃ · aḥ자에 대한 사상의 적용은 곧 '①아본불생즉반야, ②아행만행즉삼매, ③암증대공즉보리, ④악자정제즉열반'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만연사본 · 망월사본『진언집』「실담장해의총론(즉발)」과 (실담장)범례」에서는 여기에 유식의 4智, 즉 전5식의 成所作智, 제6의식의 妙觀察智, 제7식의 平等性智, 제8식의 大圓鏡智와도 적용시키고 있다.

먼저「실담장해의총론(즉발)」의 4智 적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12전성자 중 앞의 2자인 ①阿 ②啊와 뒤의 2자인 ③暗 ④惡 총 4자는 總義이고 나머지 8자는 別義이다. (…) ①아본불생즉반야, ②아행만행즉삼매, ③암증대공즉보리, ④악자정제즉열반. (…) ①초구는 (…) ①묘관찰지이다. ②제2구는 (…) ②성소작지이다. ③제3구는 (…) ③평등성지이다. ④제4구는 (…) ④대원경지이다. (…).[36]

즉 ①a阿자는 '불생즉반야'이면서 묘관찰지에 배당하고 있고, ②ā啊자는 '만행즉삼매'이면서 성소작지에, ③aṃ暗자는 '대공즉보리'이면서 평등성지에, ④aḥ惡자는 '정제즉열반'이면서 대원경지에 각각 배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문헌 내에서의 「(실담장)범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4智의 적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2전성 중 앞뒤 4자는 總(義), 가운데의 8자는 別(義)이다. ①阿자 불생반야는 6바라밀 중 마지막 반야바라밀로서 곧 ①묘관찰지이다. ②啊자 만행삼매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바라밀로서 곧 ②평등성지이다. ③暗자 대공보리는 곧 智果로서 ③성소작지이다. ④惡자 정제열반은 곧 斷果로서 ④대원경지이다.[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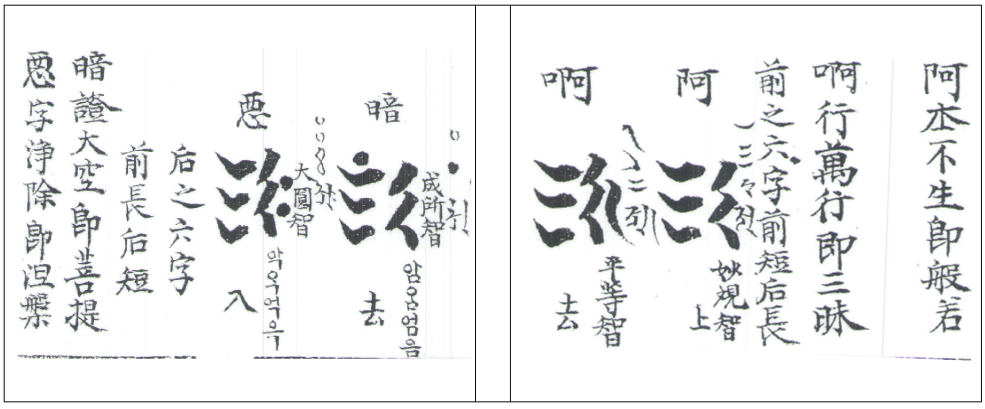
이처럼 ①a阿자 '불생즉반야'의 묘관찰지와 ④aḥ惡자 '정제즉열반'의 대원경지는 앞의 「실담장해의총론(즉발)」과 같으나 ②ā啊자 '만행즉삼매'의 평등성지와 ③aṃ暗자 '대공즉보리'의 성소작지는 그 적용이 바뀌어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만연사본·망월사본『진언집』「실담장해의총론(즉발)」과 「(실담장)범례」 중 어떤 한 부분이 판각 과정상의 誤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1886년에 간행된『실담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상의 적용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진언집』「(실담장)범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6) Ⓐ「실담장해의총론즉발」71b-72b; Ⓑ「실담장해의총론」9a-b, "十二轉字中前二阿啊及後二暗惡四字則爲總義而餘則別義也云何謂總也頌云阿本不生卽般若啊行萬行卽三昧暗證大空卽菩提惡字淨除卽涅槃此四句中具有能證所證修成本有及四智十波羅密也初句何謂不生卽般若也蓋菩薩以般若慧照見諸法皆空卽不生不滅之意不滅略也故經云是諸法空相不生不滅也卽六度後一度慧也亦是能證修成亦爲妙觀察智也第二句何謂萬行卽三昧也菩薩修萬行時無住相卽三昧故經云以無住相行布施也布施卽萬行也卽六度中前五度也亦是能證修成亦爲成所作智也第三句何謂證大空卽菩提也菩提此翻覺也菩薩成正覺時證見諸法平等皆空卽證大空之意也故經云是法平等無有高下又云三世諸佛依般若得阿耨菩提此卽所證菩提智果屬平等性智也第四句何謂淨除卽涅槃也菩薩頓斷生相淨除障惑證涅槃斷果故經云遠離顚倒夢想究竟涅槃也此卽大圓鏡智也後二智皆屬本有之理智也故云阿啊唵惡四字總義也."

37) Ⓐ「범례」7b; Ⓑ「실담장범례」15a, "十二轉聲中前後四字爲總中八字爲別初阿字不生般若爲六度中後一度慧卽妙觀察智也次啊字萬行三昧爲前五度卽平等性智也後暗字大空菩提卽智果成所作智也惡字爲淨除涅般卽斷果大圓鏡智也."

〈표 6〉『실담장』의 a · ā · aṃ · aḥ 4자와 4智의 적용



위 표에서는 분명히 ①a阿자는 '본불생즉반야'이면서 '묘관지'에 배당하고 있고, ②ā啊자는 '행만행즉삼매'이면서 '평등지'에, ③aṃ暗자는 '증대공즉보리'이면서 '성소지'에, ④aḥ惡자는 '자정제즉열반'이면서 '대원지'에 각각 배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만연사본과 망월사본 『진언집』「실담장해의총론(즉발)」에서의 4智 적용과 「(실담장)범례」에서의 4智 적용, 그리고 위 표에서 본 『실담장』에서의 4智 적용 중 어떤 적용이 타당한가? 이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4智 적용에 대한 비교

		「실담장해의총론(즉발)」	「(실담장)범례」	『실담장』
①a阿	不生卽般若	妙觀察智	妙觀察智	妙觀察智
②ā啊	萬行卽三昧	成所作智	*平等性智	*平等性智
③aṃ暗	大空卽菩提	平等性智	*成所作智	*成所作智
④aḥ惡	淨除卽涅槃	大圓鏡智	大圓鏡智	大圓鏡智

①a阿자는 이미 '불생즉반야'로서의 제법이 모두 공함을 조견한 이치를 함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통하여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서 생겨남도 멸함도 없는 能證의 '묘관찰지[제6의식]'를 증득할 수 있다. ②ā啊자는 ①a阿자의 가장 긴밀한 변현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①a阿자로부터 유출된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행적 측면의 轉聲字이다. 보살이 청정행으로서 어떠한 경계에도 매이지 않는, 보시는 물론 지계바라밀 등이 곧 '만행즉삼매'이면서 이를 통해 '성소작지[전5식]'의 轉義(āśraya-parāvṛtti)를 이루므로 이 또한 능증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aṃ暗자에는 '대공즉보리'를 적용하였다. "菩提란 곧 깨달음[覺]이다. 보살이 正覺에 들어 제법의 평등을 깨우쳤을 때 모든 것이 공한 즉 그것이 곧 大空을 증득한 것이므로 경에서는 이를 제법이 평등하여 어떠한 높고 낮음도 없다고 한 것이다."[38] 즉 所證으로서의 智果인 '평등성지[제7식]'의 증득을 ③aṃ暗자에 적용한 것이다. ④aḥ惡자에는 '정제즉열반'을 적용하였다. 보살이 모든 장애와 번뇌를 끊고 홀연히 구경열반에 든 이른바 斷果로서의 佛智이면서 무분별지인 '대원경지[제8식]'에 ④aḥ惡자를 적용함으로써 이 또한 소증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표와 같이 만연사본·망월사본『진언집』「(실담장)범례」와『실담장』의 ②ā啊자와 ③aṃ暗자에 적용된 *평등성지와 *성소작지는 ②ā啊자에 성소작지를 적용하고 ③aṃ暗자에 평등성지를 적용하여 '만행즉삼매'에는 성소작지를, '대공즉보리'에는 평등성지를 적용한「실담장해의총론(즉발)」의 적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39]

---

38) Ⓐ「실담장해의총론즉발」72a; Ⓑ「실담장해의총론」9b, "菩提此翻覺也菩薩成正覺時證見諸法平等皆空卽證大空之意也故經云是法平等無有高下."

39) 어떠한 연유로 같은 판본 안에서조차 이러한 상위점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우선 원래부터 잘못 판각된 만연사본『진언집』의 판본을 아무런 비판 없이 중간한 것이 망월사본『진언집』이며, 선가에서 이들 진언집의「(실담장)범례」에서 설해지고 4지의 적용만을『실담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진언집 실담장 구성의 교학적 체계성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한국은 종파불교적 성격의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 건국과 함께 이들의 통폐합을 통하여 禪敎兩宗으로 대별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즉 세종 6년(1424) 4월에는 曹溪宗, 天台宗, 摠南宗 3宗을 합쳐서 禪宗으로, 華嚴宗, 慈恩宗, 中神宗, 始興宗 4宗을 합쳐서 敎宗으로 하였던 것이다.[40] 따라서 본고의 텍스트인 진언집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진언집의 실담장은 이른바 禪密의 교섭, 즉 선정수행과 진언수행을 겸수하는 수행자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숙지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41] 그러므로 실담장이 곧 진언을 구성하는 범자의 음운 및 자간의 사상 등을 알려줌으로써 진언수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서였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진언집은 진언다라니를 모아놓은 단순한 문헌이 아니라 이른바 선종과 밀종의 수행적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2] 실제로 진언집에는 禪家의 천칠백칙 공안 내지 밀교의 자륜관 등이 해설되고 있음으로써 그러한 선밀교섭의 객관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전술한 여러 진언집의 실담장이 선밀겸수의 입장에서 원용하고 있는 밀교의 수법을 찾아, 그러한 목적으로 편찬된 실담장이 추구하는 체계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

40) 『세종실록』 24권, 4월 4일 002b면(한국사데이타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_106010, 2017년 4월 29일 검색).

41) 특히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선사들에게서 선정수행이 주가 되면서도 염불수행이나 다라니수행을 함께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의식부분에 있어서는 진언, 다라니가 포함되어 진행되었으며 의식집이 편찬되었다. 이와 같이 선과 염불 혹은 선과 진언수행을 함께 수행하는 풍조가 특히 조선후기에 와서 점차 나타나게 된 것은 조선전기부터 진행되어 온 통폐합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치온, 2011 「용성선사의 선밀쌍수에 대한 고찰」, 『선문화연구』 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49면).

42) 渡邊英明 1935 「[梵漢諺對音譯]朝鮮陀羅尼集小攷」, 『密敎硏究』 56, 和歌山: 高野山大學密敎硏究會, 93면에서도, "주의할 것은 이러한 진언집이 禪家의 스승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李朝代에 국가 정책에서 가장 폐해를 적게 받은 禪·敎 양종만 허용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1) 5자륜과 a · ā · aṃ · aḥ자의 연관성

먼저 진언집의 a · ā · aṃ · aḥ자에 적용된 사상과 『대일경소』 「자륜품」에서 설해지고 있는 5자륜과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대일경소』 「자륜품」에서는 진언집의 a · ā · aṃ · aḥ 4자와 āḥ자가 합해진 5자륜의 설법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a자에 대한 총설이 "최초의 阿자는 바로 보리의 마음이다. 만일 이 자를 관하여 더불어 상응하면 곧 비로자나법신의 몸과 동등하게 된다. 이른바 이 阿자를 관하는 것은 마치 공작의 꼬리와 같아 둥근 광명이 빙 둘러싸는데 수행자가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은 바로 佛位에 머무는 것이다."[43]라고 나타나고 이로부터 유출된 5자에 대한 여러 설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이 阿자에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阿 · 阿(長) · 暗 · 噁 · 噁(長)이다.[44]

> 이른바 자륜이란 이로부터 輪轉하여 모든 종자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輪이란 生의 뜻으로 阿자의 한 종자를 굴려서 네 종자를 생기게 하는 것과 같다. 阿는 菩提心이며, 阿(長)는 行이며, 暗은 成菩提이고 噁는 大寂涅槃이며, 噁(長)는 方便을 말한다.[45]

> 만일 阿자를 보면 보리심의 뜻이라고 알아야 한다. 만일 長聲의 阿자를 볼 때에는 여래의 行을 닦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暗자를 볼 때에는 成三菩提임을 알라. 만일 噁자를 볼 때에는 證大涅槃임을 알라. 만일 장성의 噁자를 볼 때에는 方便力임을 알라.[46]

---

43) 一行記, 『大毘盧遮那成佛經疏』(T. 1796, 722c21-24), "最初阿字卽是菩提之心 若觀此字而與相應 卽是同於毘盧遮那法身之體也 謂觀此阿字之輪 猶如孔雀尾輪光明圍繞 行者而住其中 卽是住於佛位也." 그리고 이하 『대일경소』 경문의 해석은 '김영덕, 2008 『대비로자나성불경소』 2, 소명출판'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44) 一行記, 『大毘盧遮那成佛經疏』(T. 1796, 722c26), "此阿有五種 阿阿(長)暗噁噁(長)."

45) 一行記, 『大毘盧遮那成佛經疏』(T. 1796, 723b2-5), "所謂字輪者 從此輪轉而生諸字也 輪是生義 如從阿字一字卽來生四字 謂阿是菩提心 阿長是行 暗是成菩提 噁是大寂涅槃 噁長是方便."

46) 一行記, 『大毘盧遮那成佛經疏』(T. 1796, 723b11-14), "若見阿字 當知菩提心義 若見長阿字 當知修如來行 若見暗字 當知成三菩提 若見噁字 當知證大涅槃 若見長噁字 當知是方便力也."

무릇 迦·遮·吒·多·波 등은 모두 阿자문에 속한다. 阿자는 菩提心이다. (…) 만일 곁의 귀에 획을 더하면 이것은 바로 行으로 보리심에 행을 겸한다. 만일 위에 점을 더하면 보리심에다 大空의 온갖 상을 여의어 보리를 성취한다는 뜻을 함께 갖춘다. 만일 阿자의 곁에 두 점을 더하면 보리심에다 온갖 장애를 여의고 열반을 얻는다는 뜻을 함께 갖춘다.[47]

즉 a阿·ā阿(長)·aṃ暗·aḥ噁·āḥ噁(長) 5자는 각각 菩提心·如來行·成菩提·大寂涅槃·方便力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진언집 실담장의 a·ā·aṃ·aḥ자에 적용된 사상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a·ā·aṃ·aḥ자에 적용된 사상

	진언집	『대일경소』
①a阿	不生卽般若	菩提心
②ā啊	萬行卽三昧	如來行
③aṃ暗	大空卽菩提	成菩提
④aḥ惡(噁)	淨除卽涅槃	大寂涅槃
⑤āḥ(噁)		方便力

위 표에서 보이는 표면적인 특징으로는, 진언집에서는 a·ā·aṃ·aḥ 4자만이 나타나고 있고, 『대일경소』에서는 āḥ자가 포함된 5자가 나타난다. 즉 진언집에서는 ⑤āḥ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대일경소』에서 자륜관법으로 설해지고 있는 5자륜은 3부4처인 불부a·연화부sa·금강부va와 額[이마]·喉[목]·心[가슴]·臍[배꼽]에 布字시켜 자모 250자와 어울려 5자륜250관법·100자륜포자관법 등으로 전개되는 매우 중요한 밀교의 수법이다.[48] 만일 5자

47) 一行記, 『大毘盧遮那成佛經疏』(T. 1796, 723c28-724a4), "凡迦遮吒多波等 皆屬阿字門 阿字是菩提心 此中初中後相加者如阿字單1是菩提心 若傍角加畫卽是行 此是菩提心幷行也 若上加點者 卽是菩提心幷大空離一切相成菩提也 若阿字傍加二點 卽是菩提心幷除一切障得涅槃也."

48) 安然撰, 『悉曇藏』(T. 2702, 431c3-9), "評曰 大日經中 有五字輪二百五十觀法 及百字輪布字觀法 幷以三十二字 爲三十二相布字觀法(…) 又大日經五字大漫荼羅 及金剛頂五字旋陀羅

륜에서 한 자라도 누락된다면 5자륜으로부터 유출되는 확장된 수행 관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49]

따라서 『대일경소』의 5자륜관과 진언집의 a·ā·aṃ·aḥ 4자는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이들 5자륜과 4자간의 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교와 밀교 전체의 관점에서 사상의 공통적인 적용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일경소』의 5자륜관과 진언집의 a·ā·aṃ·aḥ 4자의 공통적인 교학은 현교적인 선종과 순수 밀교적 입장에서의 자륜관법 교섭의 한 예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진언집의 a·ā·aṃ·aḥ 4자는 내용상으로는 밀교의 5자륜의 교학을 수용하였지만 형식상으로는 5자륜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방편력으로서의 oṃ·ā·hūṃ자

이상과 같이 밀교의 5자륜에 대한 교학을 진언집의 4자에서도 동일하게 채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진언집 어딘가에 방편으로서의 ⑤āḥ자도 반드시 설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먼저 「진언집총론」, 「실담장해의총론(즉발)」, (실담장)범례」에서의 '①阿本不生卽般若' 등의 사상적 적용과는 별도로 독립된 장인 「阿字論」을 「唵啊吽(字)論」 앞에 위치시켜 ①a阿자의 體·相·用을 폭넓게 해설하고[50] 나

尼 並是祕密修證之法門也."

49) 실제로 『대일경』에서 3부4처에 포자한 5자륜에서는 ⑤āḥ噁(長)자에 적용되는 āḥ·sāḥ·vāḥ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⑤āḥ噁(長)자는 釋迦佛輪으로서 일체륜에 포섭되어 별도의 단이 없으므로, ①a阿로부터 유출된 ā·aṃ·aḥ·āḥ자 중에서의 ⑤āḥ噁(長)자의 역할은 이른바 방편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5자륜을 통한 확장된 수법으로 전개될 때는 ⑤āḥ噁(長)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5자륜으로부터 확장되는 5자륜250관법·100자륜포자관법 등에 대해서는 강대현, 2014 「悉曇字母와 관련된 眞言(修行)의 理論과 實際에 대한 考察-安然의 『悉曇藏』 卷第6 「字義入門」을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16, 한국불교선리연구원, 424-425면을 참고하기 바람.

50) 「阿字論」에서의 ①a阿자에 대한 體·相·用을 요약하면, "일체자의 根本母이다. 일체여래의 보리심, 일체여래의 진여묘체, 일체여래의 전신사리, 역대조사의 현관, 일체중생의 본성이면서 無生의 도리이다. (…) 아자는 화엄의 심심법문으로서 攝圓頓門이며, 선문 천칠

서 방편으로서의 ⑤āḥ자에 대한 교학을 만연사본·망월사본 『진언집』의 「唵啊吽(字)論」에서 설하고 있다. 즉 「唵啊吽(字)論」이 곧 밀교 5자륜의 마지막 ⑤āḥ자에 대응되는 방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만연사본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唵啊吽(字)論」에서 oṃ·ā·hūṃ자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먼저 oṃ자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 일체 진언의 母[어미]인 唵자는 곧 身金剛이며 또한 身輪方便이므로 모든 작법의 설행 시에 瑜伽行을 닦는 자는 攝心하고 安座하여 손에 金剛杵를 잡고 난 뒤 唵자를 誦하거나 想을 떠올려 運觀한다. (…) 이와 같이 일체의 聖衆 앞에 다함이 없이 광대한 供養을 한다. 이러한 唵자의 加持力 및 諸佛의 진정한 가르침[誠諦]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供養을 성취하게 되며, 장차 이러한 唵·啊·吽이 나뉘어 가지런하게 드러나므로 唵자는 곧 攝供養觀이다.[51)]

즉 oṃ唵자[52)]를 일체 진언의 어미로서 이 oṃ자를 가지하여 신금강으로 여기며, 방편으로 몸을 변현하여 중생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륜방편인 것이다. 이러한 변현된 모든 여래에게 공양하므로 oṃ唵자는 곧 모든 공양관에 포섭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ā자에 대해서는,

> 일체 字의 어미인 啊字는 語金剛이며 또한 口輪方便이기 때문에 (啊자의) 想을 떠올리거나 誦하거나 이를 觀하면 낱낱의 부처가 나타나는 바를 모두 말로서 설하여 나타낼 수가 없다. (…) 이 啊字는 곧 攝禮拜觀이다.[53)]

백칙 공안으로서 攝徑截門이며, 아미타불 현전의 정토법문으로서 攝淨土門이다. (…)[Ⓐ「아자론」68a-70a; Ⓑ「아자론」5a-7a]."

51) Ⓐ70a-b; Ⓑ7a-b, "[illegible](𑖀𑖽)此唵字一切眞言之母卽身金剛亦爲身輪方便故大小作法之時修瑜伽行者攝心安座手執金剛杵次以唵字或誦或想運觀悉以上妙勝義自性淸淨香燈茶花菓餠米種種妙供具雲海奉獻所有盡法界虛空界十方三世一切佛刹極微塵中種種菩薩海會如是一切聖衆前而爲無盡廣大供養由此唵字加持力及諸佛誠諦故法爾眞成就供養將此唵啊吽顯其分齊唵字卽攝供養觀也."

52) 망월사본 『진언집』상·하(古 1730-45, v.1-2 / 규장각 소장) 중 하권 5b에서는 "出生供養眞言 [illegible]唵:옴"이라고 함으로써 oṃ唵자가 '출생공양진언'임을 알 수 있다.

ā啊자는 일체자의 어미이며, 근본모로서의 a자를 제외한 12전성 중 가장 많은 말의 변현을 나타낸다. 즉 ā啊자 8전성의 음운을 유출하여 만행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ā啊자는 어금강이며 구륜방편으로서 하나하나의 부처에 예배하듯이 이 ā啊자를 가지하는 것은 곧 모든 예배관을 포섭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hūṃ자에 대해서는,

> 眞心種子인 吽자는 곧 意金剛이며 또한 意輪方便이기 때문에 (吽자를) 誦하거나 想을 떠올리거나 觀한다. (…) 모든 중생이 간단없이 일념으로 3업을 닦아 회향하면 온갖 번뇌가 없어지므로 이 吽자는 곧 攝回向發願觀이다.[54]

즉 hūṃ吽자는 순일한 마음의 종자자로서, 이러한 마음은 곧 의금강이며 의륜방편으로 작용한다. 이를 송하거나 상을 떠올리거나 관하는 것은 모두 회향발원을 포섭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언을 加持한다는 말에는 그 本身인 唵자는 大遍照如來로서 곧 사바세계에 나투신 석가의 變相이다. 따라서 (석가가) 열반에 들 때 중생에게 고하기를 '내가 滅度한 후에 몸을 바꾸어 나타나 이 呪로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啊자는 無量壽如來로서 곧 西方阿彌陀佛의 本身이고, 吽자는 阿閦如來로서 곧 東方琉璃光佛의 本身이다. 이러한 세 呪를 加持한 힘으로 일체의 佛事를 성취한다. 만일 이러한 힘이 아니면 비록 億万珍財를 이루는 功勞을 하더라도 마침내 이익이 없을 것이다."[55]라고 하는 바와 같이 이상의 oṃ · ā · hūṃ자는 모두 방편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진언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서의 oṃ · ā · hūṃ자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53) Ⓐ70b; Ⓑ7b, "[illegible](𑖀𑖽)此啊字一切字母語金剛亦爲口輪方便故或想或誦運觀一一佛所皆現不可說不可說佛刹極微塵數身一一身遍禮不可說不可說佛刹極微塵數佛前慇懃恭敬禮拜旋繞者由此加持力法界力行願力故法爾眞成就禮拜此啊字卽攝禮拜觀也."

54) Ⓐ70b-71a; Ⓑ8a, "[illegible](𑖪𑖽)此吽字眞心種子卽意金剛亦爲意輪方便故或誦或想運觀以此分身禮念供養功德加持功德法界功德發願功德力爲於四思三有法界冤親水陸受苦含靈等永滅罪垢發菩提心皆歸淨土之願代諸衆生所修回向念念相續身語意業無有疲厭此吽字卽攝回向發願觀也."

55) Ⓐ71a; Ⓑ8a-b, "是故名曰加持眞言言其本身唵字大遍照如來卽娑婆世界釋迦變相故涅槃時告衆曰吾滅度後變作此呪利益一切衆生啊字無量壽如來卽西方阿彌陀佛本身吽字阿閦如來卽東方琉璃光佛本身以此三呪加持力成就一切佛事若非此力雖億万珍財徒設功勞終無利益."

〈표 9〉 oṃ·ā·hūṃ자의 방편론

唵·啊·吽字論	oṃ唵자	一切眞言之母	身金剛	身輪方便	攝供養觀	大遍照如來卽姿婆世界釋迦變相
	ā啊자	一切字母	語金剛	口輪方便	攝禮拜觀	無量壽如來卽西方阿彌陀佛本身
	hūṃ吽자	眞心種子	意金剛	意輪方便	攝回向發願觀	阿閦如來卽東方琉璃光佛本身

『대일경소』의 5자륜의 교학인 보리심, 여래행, 성보리, 대적열반에 대응하는 진언집 실담장의 a·ā·aṃ·aḥ자와 마지막 āḥ자에 대응하는 진언집의 oṃ·ā·hūṃ자는 진언집 편찬자의 의도적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5자륜의 āḥ자는 別壇이 없이 5자륜에 들어감으로써, 이른바 방편으로서 어떤 자륜에도 함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oṃ자는 석가세존의 본신으로서 신륜방편으로 나타나고, ā자는 아미타불의 본신으로서 구륜방편으로 나타나고, hūṃ자는 유리광불의 본신으로서 의륜방편으로 현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oṃ·ā·hūṃ자의 방편관은 다름 아닌 5자륜의 마지막 āḥ자의 한국불교의 현실적 적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진언집의 실담장에서 a·ā·aṃ·aḥ자에 대한 사상적인 적용과 더불어 a·oṃ·ā·hūṃ자에 대한 별도의 장을 통한 불교 교학적인 구성을 주도한 편찬자의 의도는 이러한 밀교 수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집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는 먼저 진언다라니의 여법한 독송 내지 관상 등을 위한 실담장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았고, 실담장 범자음운에 불교사상이 적용된 부분은 기존의 『열반경』 등에서 나타났던 적용방식과는 다른 진언집 「실담장」만의 독특한 적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망월사본 『진언집』에만 나타나고 있는 「진언집총론」의 a·ā·aṃ·aḥ자에 대한 사상은 발보리심으로부터 성구경각에 이르는 차제적 특성을 적용한 총의를 함의하고 있었으며, 만연사본·망월사본 『진언집』 「실담장

해의총론(즉발)」과 (실담장)범례」에서는 이들 4자에 유식의 4智를 적용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진언집 「실담장」의 총의인 a·ā·aṃ·aḥ자에 적용된 사상과 별의로서의 8전성, 5음으로서의 25자모, 8초음 등에 적용된 전체적인 구성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 10〉 실담장 49자문(kṣa제외) 구성의 관계와 그 원리

<table>
<tr><td colspan="2">a:
不生卽般若/묘관찰지</td><td colspan="2">ā:
萬行卽三昧/성소작지</td><td colspan="2">aṃ:
大空卽菩提/평등성지</td><td colspan="2">aḥ:
淨除卽涅槃/대원경지</td></tr>
<tr><td colspan="2">ṛ·ṝ·ḷ·ḹ:
智바라밀(반야바라밀보조)</td><td colspan="2">ṛ·ṝ·ḷ·ḹ:
方便바라밀(보시·지계·인욕바라밀보조), 願바라밀(정진바라밀보조), 力바라밀(선정바라밀보조)</td><td colspan="2">菩提爲智果</td><td colspan="2">涅槃爲斷果</td></tr>
<tr><td>20
般若卽不生</td><td>ka·kha·ga·gha
ca·cha·ja·jha
ṭa·ṭha·ḍa·ḍha
ta·tha·da·dha
pa·pha·ba·bha</td><td>8轉
三昧卽萬行</td><td>i·ī·u·ū·e·ai·o·au</td><td>5入
菩提卽大空</td><td>ṅa(10신)·ña(3현)·ṇa(전7지)·na(후3지)·ma(불과)</td><td>8超
涅槃卽淨除</td><td>ya·ra·la·va·śa·ṣa·sa·ha</td></tr>
</table>

위의 표를 진언집의 구성에 의거하여 풀어보면, a자에서 20자모인 ka·kha·ga·gha·ca·cha·ja·jha·ṭa·ṭha·ḍa·ḍha·ta·tha·da·dha·pa·pha·ba·bha자가 유출되어 다시 묘관찰지의 a자와 상응하고, ā자에서 8전성으로서의 i·ī·u·ū·e·ai·o·au자가 유출되어 다시 성소작지의 ā자와 상응한다. 마찬가지로 aṃ자에서도 鼻音인 ṅa·ña·ṇa·na·ma 5자가 유출되어 평등성지인 aṃ자와 상응하고, aḥ자에서 超音인 ya·ra·la·va·śa·ṣa·sa·ha 8자가 유출되어 대원경지인 aḥ자와 상응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助音이면서 補巧聲인 ṛ·ṝ·ḷ·ḹ 4자[56]

56) 慧琳撰, 『一切經音義』(K. 1498, 521b10-11; T. 2128, 470c20-21), "이 4자는 聲明에 뛰어난 전문가가 쓸 수 있을 뿐 초학동몽이나 일반인들은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高

는, a자 반야바라밀을 조력하여 智바라밀을, ā자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바라밀을 조력하여 方便(보시・지계・인욕보조), 願(정진보조), 力(선정보조)바라밀의 역할을 수행하며, aṃ과 aḥ자 또한 보리로서의 지과와 열반으로서의 단과를 포섭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진언집에 나타나고 있는 조선시대 실담장의 전체적인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총의[a・ā・aṃ・aḥ]와 별의[i・ī・u・ū・e・ai・o・au] 및 조음[ṛ・ṝ・ḷ・ḹ]을 설정하여 모음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20자모와 결합된 반야의 지혜로서 제6의식을 전환하여 묘관찰지에 이르고, 만행을 통한 삼매로서, 즉 8전성이 곧 만행상이라는, 전5식을 전환하여 성소작지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조음 4자는 능증으로서의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a와 ā의 6바라밀과 ṛ・ṝ・ḷ・ḹ의 4바라밀이 합하여 총 10바라밀의 교학이 완성된다. 이어서 제7식을 전환하여 원만한 평등성지에 이르는 대공음인 aṃ자와 비음인 ṅa・ña・ṇa・na・ma가 상응하고, 제8식의 전환을 통하여 대원경지에 이르는 열반음인 aḥ자와 초음인 ya・ra・la・va・śa・ṣa・sa・ha로 구성하여 자음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aṃ과 aḥ자의 지과와 단과를 통하여, 제법에 대한 대공의 깨우침이 곧 보리이며 모든 장애 내지 번뇌를 멸한 정제가 곧 열반이라는 불교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담장을 확장하여, 진언집에서는 또한 밀교의 5자륜인 a・ā・aṃ・aḥ・āḥ자 중 앞의 4자에 실담장 a・ā・aṃ・aḥ자를 적용시키고, 마지막 āḥ자의 방편력에 oṃ・ā・hūṃ자를 적용시켜 각각 신륜・구륜・의륜의 방편으로 삼음으로써,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중국 등의 밀교 수법보다도 폭넓고 풍부한 사상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이미 선행의 연구에서 폭넓게 다뤄진 진언집의 제 분야에 보충하여 진언집의 실담장 부분을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소홀히 다뤄진 부분을 재고찰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를 살펴본다면 진언집 실담장의 범자음운 및 사상 체계는 조선후기에 유통되었던 이른바 한국 실담장의

才博學曉解聲明能用此四字初學童蒙及人衆凡庶實不曾用也)."라고 하였다.

독자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며, 또한 고대한국 및 고려시대의 실담장에 대한 자료와 함께 본고를 살펴본다면 한국 실담장을 통시적으로 이해함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문투고일(2017. 5. 9), 심사일(2017. 5. 18), 게재확정일(2017. 6. 5)

참고문헌

약호:
K:『고려대장경』
T:『대정신수대장경』

『眞言集』(古 1730 59A / 규장각 소장)
『眞言集』상・하(古 1730-45, v.1-2 / 규장각 소장); 『진언집』건・곤(一簑 古 294.33-Y8j, v.1-2 / 규장각 소장); 『진언집』상・중・하(奎 1730-16A, v.1-3 / 규장각 소장)
『結手文正音』全(古 1730-34 / 규장각 소장)
『大陁羅尼眞言集』全(일사 古 294.33 D13j / 규장각 소장)
『眞言集』(奎 1730-16) / 규장각 소장
『眞言集』[김해정 편, 『眞言集』(이본5종), 2007, 홍문각]
『秘密教集』全(일사 古 294.31-B51 / 규장각 소장)
『密教開刊輯集』(D212・19-몽64ㅁ,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諸眞言集』(貴重書 濯足 114 / 駒澤大學 電子貴重書庫 所藏 http://repo.komazawa-u.ac.jp/opac/collections/453/?tm=1430697600157)
『悉曇章』(등록번호: D1872, 청구기호: 491.2 실221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세종실록』 24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_106010)

玄應撰,『一切經音義』(K. 1063)
慧琳撰,『一切經音義』(K. 1498)
安然撰,『悉曇藏』(T. 2702)
一行記,『大毘盧遮那成佛經疏』(T. 1796)
玄奘譯,『大般若波羅蜜多經』(T. 220)
法藏述,『華嚴經探玄記』(T. 1733)
龍樹造 鳩摩羅什譯,『大智度論』(T. 1509)
慧遠述,『大乘義章』(T. 1851)
法藏述,『華嚴經探玄記』(T. 1733)
法護譯,『佛說如來不思議祕密大乘經』(T. 312)

김영덕, 2008『대비로자나성불경소』2, 소명출판.
이태승・안주호, 2004『悉曇字記와 望月寺本 眞言集 硏究』, 글익는들.
이태승・최성규 공저, 2008『실담범자입문』, 정우서적.
馬淵和夫, 2006『悉曇章の硏究』, 東京: 勉誠出版.
渡邊英明, 1933「悉曇梵語初學者の爲めに」,『密敎硏究』50, 和歌山: 高野山大學密敎硏究會.
周廣榮, 2004『梵語'悉曇章'在中國的傳播與影響』, 北京: 宗敎文化出版社.
高正龍・小林義孝・松永修輔・松波宏隆・三木治子・横田 明・金大煥・嚴基杓(東アジア梵字文化硏究會), 2014「韓國梵字資料調査(2011・2012年調査)」,『歷史考古學』69, 大阪: 歷史考古學硏究會.
渡邊英明, 1935「[梵漢諺對音譯]朝鮮陀羅尼集小攷」,『密敎硏究』56, 和歌山: 高野山大學密敎硏究會,

강대현, 2014「悉曇字母와 관련된 眞言(修行)의 理論과 實際에 대한 考察-安然의『悉曇藏』卷第6「字義入門」을 중심으로-」,『선문화연구』16, 한국불교선리연구원.
_____, 2015「安然의『悉曇藏』에 나타난 慧均의『大乘四論玄義記』卷第11「十四音義」:「十四音義」의 복원을 위한 序說」,『한국불교학』77, 한국불교학회.
_____, 2016「『대승사론현의기』에 나타난 혜균의 悉曇章」,『인문논총』73-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치온, 2011「용성선사의 선밀쌍수에 대한 고찰」,『선문화연구』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남희숙, 2000「朝鮮時代 陀羅尼經・眞言集의 간행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大 奎章閣所藏本의 분석을 중심으로」,『회당학보』5, 회당학회.
_____, 2004「16-18세기 佛敎儀式集의 간행과 佛敎大衆化」,『韓國文化』3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_____, 2004「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병채, 1979「眞言集悉曇章攷」,『국어문학』20(一山 金俊榮先生 華甲紀念論叢), 국어문학회.
안주호, 2002「안심사본『진언집』과 망월사본『진언집』의 비교 연구」,『배달말』31, 배달말학회.
_____, 2002「망월사본『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국어교육』109, 한국어교육학회.
_____, 2003「만연사본〈진업진(1777년)〉의 표기법 연구」,『국어국문학』133, 국어국문학회.

안주호・이태승, 2003「망월사본 〈眞言集凡例〉에 대한 연구」,『한국어학』19, 한국어학회.

_____, 2011「훈민정음과 실담문자」,『밀교학보』12,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이태승・안주호, 2003「『秘密開刊集』의 체계와 표기에 대한 연구」,『배달말』32, 배달말학회.

이태승, 2003「망월사본『진언집』의「실담장해의총론」에 대한 연구」,『밀교학보』5, 위덕대학교밀교문화연구원.

_____, 2010「『진언집』梵字 한글음역 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그 해석」,『인도철학』28, 인도철학회.

전동혁, 1992「『眞言集』『秘密敎』로부터 본 李朝密敎」,『중앙승가대학논문집』1, 중앙승가대학교.

Abstract

A study on the tones of Sanskrit and the systems of thought through the analysis of Siddhavastu in Jineonjip during the Joseon period

Kang, Dae-hyun

Siddhavastu is emerging in many Jineonjip[Collection of Mantras] publish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Especially, there are many of separate sentences in a book versions of Manyeonsa and Mangwolsa *Jineonjip* each book constructs and applies the describe at full length of the tones of Sanskrit along with the thought of the Mahayana Buddhism. The letters of [a · ā · aṃ · aḥ] apply the thought of 'nonarising is prajñā-pāramitā' and so forth, the letters of [i · ī · u · ū · e · ai · o · au] are 'eight transformed samādhi are all practices'. Likewise, the letters of [a · ā · aṃ · aḥ] apply the four kinds of cognition of Yogacara Thought. The letters of [ṛ · ṝ · ḷ · ḹ] apply skillful means · desire · strength · knowledge-pāramitā assist prajñā-pāramitā for [a] letter and giving · observe precepts · patience · effort · meditative concentration-pāramitā for [ā] letter. The 'twenty prajñā-pāramitā is nonarising' were applied [ka · kha · ga · gha, ca · cha · ja · jha, ṭa · ṭha · ḍa · ḍha, ta · tha · da · dha, pa · pha · ba · bha] and the ten stages of faith were applied [ṅa], the three degrees of worthies were applied [ña], the front seventh bhūmi were applied [ṇa], after third bhūmi are [na], and the buddhahood was applied [ma]. Lastly, the letters of [ya · ra · la · va · śa · ṣa · sa · ha] apply permanence · bliss · self · purity and impermanent · no bliss · no-sel f · impure. In the meanwhile, the terms of education and scholarship for Siddhavastu of Jineonjip, the wheel of five words [a(enlightened mind) · ā(tathāgata practices) · aṃ(accomplish enlightenment) · aḥ(become a great quiet) · āḥ(the power of skillful means)] in Esoteric Buddhism and the letters of [a · ā · aṃ · aḥ] in Siddhavastu of Jineonjip

correspond each other, but the application of [āḥ] is ostensibly not emerging. It's application of the power of skillful means, that is, [oṃ(skillful means for wheel of body) · ā(skillful means for wheel of speech) · hūṃ(skillful means for wheel of knowledge of thoughts)] were applied separately, that's a unique application of Jineonjip different from the wheel of five words of Esoteric Buddhism.

Key words : Jineonjip, Siddhavastu, four kinds of cognition, ten stages, the wheel of five words, the power of skillful means